



<b>코스피</b> 2443.58 (+15.67)	<b>코스닥</b> 899.46 (+5.29)
<b>금리</b> (연평균) 0.907 (-0.012)	<b>환율</b> (USD) 1179.00 (-4.50) (15일)



**[추석 특집]**  
코로나도 꺾을수 없는 마음  
거리두기 없는 정성 전하세요  
L4~L6

### Q 르포 | 정용진의 야심작 '노브랜드버거' 역삼점 가보니



노브랜드버거 역삼점의 서빙 로봇. /신세계푸드

## 무인·자동화 시 무장 미래형 점포 유통혁신

로봇이 햄버거 패티와 빵을 굽고 서빙까지 해주는 노브랜드버거 역삼점역이 외식업계에서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상상속이나 있었던 미래의 외식매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AI로 무장한 노브랜드버거는 무인화, 자동화, 표준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직접 이곳을 방문해 매장 전경을 개인 SNS에 업로드하는 등 노브랜드 버거 홍보의 최전선에 서기도 했다.

#### ◆로봇 앞세워 비대면 강화

지난 14일 점심시간 노브랜드버거 역삼점역은 식사를 하러 온 직장인들로 붐볐다. 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전자 명부작성, QR 코드 등록 등을 충실히 이행했다.

포스트 코로나 선도적 대응 주목 안내직원 외 다른 직원 노출 없어 서빙 로봇이 음식 안내에 전달도 빵·패티 조리까지 자동화로 진행 역삼점 시범 운영 후 타매장 확대

명부 작성만을 담당하는 직원 한 명이 입구에 계속 머무르고 있을 정도였다. QR코드 확인을 마치고 나면 직원이 키오스크로 향하는 줄을 안내해줬다. 매장 왼편에는 세 대의 키오스크가 나란히 서있었고, 기기에 따라 줄이 달랐는데 이곳을 픽업존이라 부른다. 안내 직원에게 메뉴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고 묻자 "대략 15분"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메뉴를 주문하고 결제까지 다른 직원과 마주칠 확률은 없었다. 햄버거를 만들고 건네주는 직원들이 있는 데스크는 아예 매장 안쪽 오른편에 있었기 때문이다. 테이크아웃을 선택한 고객은 안내 직원을 제외한 직원과의 접촉 없이 음식을 받아갈 수 있다.

키오스크 너머에 서빙 로봇 세 대가 있어서 데스크 끝에 위치한 직원이 포

장 메뉴를 올려놓으면 로봇이 움직여 픽업존으로 온다. 서빙 로봇에는 주문 번호가 적혀있고 음식을 전달하며 음성 안내도 하기 때문에 확인한 후 가져 가면 된다.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15분이 지나 전광판에 알람이 떴다. 로봇 덕분에 언택트와 편리미엄(편리함+프리미엄)이 결합돼 포스트 코로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식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신세계푸드는 "테이크아웃 수요가 많은 역삼점역을 오픈에 맞춰 직접 제작한 서빙로봇 운영을 시작했다"면서 "국내 로봇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기존 하드웨어에 노브랜드버거의 사업 타입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 ◆자동화 시스템 구축

노브랜드버거 역삼점역이 타오프라인 식당과 차별화된 점은 조리도 자동화로 한다는 것이다.

이 시그니처 매장의 자동화 기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번을 데우는 레일과 패티를 굽는 장비다. 빵과 패티는 햄버거의 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자동화로 완성한다는 것은 정확하고 빠른 조리 시스템을 상당 부분 구축했다. 직원이 장비 윗부분 재료 투입구에 수십 개의 빵과 패티를 채워놓기만 하면 키오스크가 보내는 디지털 신호에 따라 재료가 조리 라인으로 내려와 구워진다. 매장이 바쁠 때를 제외하면 직원들은 조리의 보조를 맡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요리의 신선도와 더불어 요즘 같은 시기에 조리 안전성까지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이 기기는 신세계푸드가 자체 개발했다. 신세계푸드 측은 "아직 자동 조리 기구가 테스트 단계"라며 "역삼점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추후 다른 매장 및 영역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브랜드버거가 기계의 성능을 높이고 콤팩트화 하는 작업이 끝나면 패스트푸드 업계에 대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세계푸드의 하반기 실적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노브랜드버거의 포장 및 배달 매출은 상승하고 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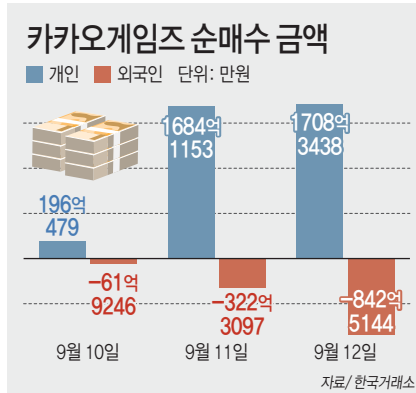
## 상장 즉시 매도... 外인에 유리한 공모주

해외기관 의무보유확약기간 미적용 외인 먼저 수익내는 불공정 제도 지적

기업공개(IPO) 공모주 시장이 외국인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나온다. 의무보유확약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기관(외국인)이 단타 매도로 국내 기관투자자와 '개미'(개인투자자)보다 먼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내 기관투자자와 달리 해외기관은 '의무보유확약기간'이 걸려 있지 않다. 의무보유확약이란 보유 주식을 특정 기간 안에 팔지 않겠다는 약정이다. IPO 흥행에 성공한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모두 외국인은 상장 즉시 차익을 실현하는 단타 매도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7월 2일 상장한 SK바이오팜은 '타상상상' (시초가가 공모가 2배, 3거래일 연속 상한가), 지난 10일 상장한 카카오게임즈는 '타상상' (공모가 2배, 2거래일 연속 상한가)을 기록해 이른바 IPO '광풍'을 일으켰다. 공모주 일



반 청약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원의 청약 증거금을 납입하고, 상장 첫날 추격매수에 나선 개인투자자나 일정 기간 팔 수 없는 국내 기관(의무보유확약기간 2주~6개월)과 달리 외국인은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를 이어갔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실제로 외국인은 SK바이오팜 주식 상장 직후 14거래일 연속 매도했다. 지난 7월 2일부터 17일까지 14거래일간 외국인의 SK바이오팜 순매도 금액은 8920억3626만원에 달한다.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외국인은 지난 10일에서 14일 5거래일 간 연속 매도했다. 이 기간 이들의 카카오게임즈 순매도 금액은 1460억3619만원 기록했다.

외국인이 팔아 치운 물량은 개미들이 떠안았다. 지난 7월 2일부터 17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은 SK바이오팜 6450억8286만원을 순매수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10일에서 14일까지 3588억5070만원어치를 사들였다.

이에 따라 외국기관(외국인)이 먼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의 공모주 배정 물량을 줄이거나 의무보유확약을 강화하지는 의견이다.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원은 "단기 차익실현은 개인이나 외국인이나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의 선택에 관련한 사항"이라며 "중장기적인 IPO 공모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개포1단지 3.3㎡당 1억8000만원

15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인근 한 부동산 중개업소. 올해 서울에서 3.3㎡(평)당 1억원이 넘는 거래된 아파트 단지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3㎡당 실거래 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는 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퍼스티어아파트)로 3.3㎡당 1억8086만원에 거래됐다. /연합뉴스

## “GC녹십자 ‘라이넥’ 코로나 치료 뚜렷한 효과”

러시아 국립대 연구팀 논문 발표 중증환자 염증·장기손상 감소 확인

러시아에서 태반주사제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뚜렷한 치료 효과가 확인됐다.

15일 GC녹십자웰빙에 따르면 태반 전문 제약회사 JBP(쥬일본생물제제)의 한국현지법인 제이비피코리아는 러시아 국립 연구의학대학 연구팀에서 인태반가수분해물 '라이넥'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러시아에서 2020년 4월부터 5월 사이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라이넥을 정맥 투여하며 증상 개선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39세에서 86세까지의 총 28명으로, 대조군 14명, 라이넥 투여군 14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8명은 2형 당뇨, 12명은 죽상동맥경화증 및 관상동맥심장질환 등 합병증을 가진 환자였다. 이 환자들은 인공호흡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였으며, 대조군은 표준치료법으로 처치했다.

연구에서 라이넥 투여군은 혈중 페리틴이 감소함을 확인했지만, 대조군에서는 감소하지 않았다. 간기능 저하, 중증호흡기질환일 경우 혈중 페리틴이 높아지게 되는데, 코로나에 감염되어 적혈구세포가 용해될 경우 혈중 페리틴이 증가하게 된다.

중증도 감염에서 증가하는 C반응성단백질(CRP)도 라이넥 투여군에서 감소했으며, 14명중 4명은 정상 수준까지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CRP 수치가 사이토카인 폭풍과 혈전이 발생하지 않을 수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호흡이 어려웠던 11명의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개선되었고, 간손상지표(AST, ALT)와 신장손상 지표인 크레아티닌 수치도 감소했다. 또 라이넥 투여군의 CT 소견에서 폐수치가 크게 개선되었고, 림프구는 증가함을 보여 그 결과 3일에서 15일 후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했다. 대조군에서는 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회사 측은 "이번 연구 결과는 라이넥의 코로나19 중증환자에 대한 염증반응,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손상 감소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기전적으로 라이넥의 펩타이드 성분이 세포 및 조직재생에 관여한 것으로보고, 후속 연구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